



아무리 바빠도 빼먹을수없는

★글 | 이은희 과학저술가

재즈댄스의 즐거움

● 2003년 가을, 나는 내가 살아온 스물여덟 해 중에서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었다. 적어도 아침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연구소에 매인 몸이었고, 단행본 출간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에 퇴근 후에는 글 쓰느라 노트북 붙들고 새벽까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 준비는 왜 또 그리 잔손이 많이 가는지. 막연히 생각했던 결혼이 눈앞에 닥치고 보니 이게 식장 정하고 드레스만 고르면 되는 게 아니더라 말이다. 그렇게 정신 없는 순간을 지내면서도 나는 저녁 8시만 되면, 실험복과 노트북을 던지고 차에 시동을 걸곤 했었다.

연구소 근처에 작은 재즈댄스 학원이 있었다. 1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재즈댄스에 부쩍 재미가 붙어서 아무리 바빠도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재즈댄스를 빼먹지 않았다. 아니, 너무 재미있어서 빼먹을 수가 없었다. 스텝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 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움직이고 나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피로마저 싹 달아난 듯이 가벼워지니까. 처음 몇 달, 남들은 다 하는 동작을 나 혼자만 버벅거리던 어색한 시기가 지나가자,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좀 더 정확하고 예쁜 동작을 나름대로 연구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동작이 몸에 익어갈

수록 음악이 귀에 친근하게 달라붙을수록 자신감도 늘어갔고, 몸매도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신감이 조금씩 쌓이자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헐렁한 옷에 누가 보고 웃기라도 할까봐 흘끔거리던 모습은 없어지고, 화려한 장식이 달린 랩스커트를 대담한 디자인의 탱크톱과 매치시키고는 자신 있는 눈빛으로 거울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강사의 동작을 보기보다는 거울에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주병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스스로에게 '우와, 너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라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순간이 오자, 바쁘다고 이 기쁨의 순간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지고 만 것이다.

● 어릴 적부터 나는 샘이 많고, 지기 싫어하는 바쁜 아이였다. 그런 내게 있어 휴식과 여유란 언젠가 내가 나이 들어 이것저것 다 이뤄놓고 은퇴한 이후에나 갖는 시간이라는 느낌이였다. 그래서 아직 젊은 나에게는 '여유=나태'라는 의식이 강했고,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남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었다. 그런 속에서 우연히 친구 따라 갔다가 배우기 시작한 재즈댄스는 '바쁜 삶 속의 여

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반드시 따스한 오후에 햇살 가득한 방에서 꽃잎 하나, 나뭇잎 하나씩 뒹아가며 꽃꽂이를 하는 것만이, 머나먼 남국의 어느 땅에서 선텐용 의자에 누워 있는 것만이 여유는 아니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단순히 그 순간이 즐거워서 하는 일을 생활 중간에 짬짬이 넣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삶의 여유'로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게 있어 재즈댄스는 '몸을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희열'을 가르쳐 준 고마운 여유였다.

● 이제는 그 때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직장을 옮기면서 학원은 그만뒀지만, 여전히 새로운 여유를 찾아내고 있다. 요즘 찾아낸 여유는 요가이다. 3년 전에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둔 전력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비디오를 따라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한동안 운동을 안 했더니 몸이 뻣뻣해져 썩썩대는 내 모습을 남편은 놀리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즐거운 걸 보니, 난 아무래도 낮잠을 자거나 조용히 쉬는 여유량은 친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은희**